

【제74차】 프로이트와 주체의 문제

이성원(서울대 영문과 교수)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코기토로 대표되는 의식적, 표상적 주체 개념에 도전하며 따라서 주체 중심의 관념철학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프로이트 자신에 의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체계 안에 나타나는 (진정한 주체로서의) “무의식의 주체”와 같은 주체 개념은 시종일관 재현하는 주체이며 따라서 관념철학의 주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어떤 종류의 정신 질환은 과거의 특정한 체험을 기억해내 이야기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는 ‘기억의 회복-언표-치유’의 가설을 갖고 있는데 이는 과거를 기억(=내면화, Erinnerung)함으로써 역사적 존재로 태어난다는 헤겔의 역사철학을 개인사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주체에서 코기토라는 의식적 주체에게서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수행

하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적 주체는 의식을 의식해 욕망을 왜곡시켜 충족시키는데 이것은 무의식적 주체가 욕망의 내용을 이미 무의식 속에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의식은 철저히 표상적 재현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주체의 표상적 모델은 단지 비유적인 것 이상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프로이트의 의의는 무의식이 “말하고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는 라깡과 같은 후대 학자들의 평가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며, 프로이트가 말하는 리비도의 자기 관철을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같이 표상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력, 생명을 위한 추진력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표상하는 주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